

광주, 도시광산 사업 유치 속도전

도시광산기술원 설립 적극 추진 ... 폐가전제품에서 희소금속 회수

광주광역시와 폐가전제품에서 희소금속을 회수하는 도시광산 사업의 토대인 도시광산기술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4월19일 담양리조트에서 강운태 시장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관계자, 관련기업 등 국내 도시광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도시광산 사업 육성방안과 광산기술원 설립 필요성 등을 모색했다.

광주시는 기술원을 광주에 설립해 도시광산 사업을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시광산은 폐 휴대전화기 등 폐가전제품에 들어 있는 금속자원을 회수해 IT, BT, NT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R&D특구의 부지 4만5000㎡에 2000억원을 투입해 도시광산 기술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광산업, 생활가전, 자동차, 2차전지 등 도시광산 사업 육성기반의 토대가 될 진곡산업단지는 2011년 1월 R&D특구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2011년 지식경제부에 기술원 설립을 제안하고 7월 지역포럼, 10월 국회포럼을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광산기술원 광주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20>